

우리가 생략해버린 것들!

지금껏 믿고 가르쳐온 복음에 송송 뚫린 구멍이 있다!

그동안 기독교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과 전도훈련을 개발해왔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믿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분명 바람직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복음 전도가 가져다준 피할 수 없는 어두운 면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복음을 단순히 천국 가는 보증수표 정도로 이해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는 삶과는 여전히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하고 전해줌으로써 그분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한 개종의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진정한 복음의 핵심적 개념이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너무도 좋고 감사한데 주님으로까지는 믿고 싶지 않다고 반응하는 괴물 같은 교인들이 양산(量産)되어 온 것이다. 구원은 확신하는데 삶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복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복음인가? 왜 이토록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되었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동안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발되어온 복음 메시지 전달 방식이 오히려 복음의 내용을 그토록 허약하게 만들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짧은 시간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오해하면서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가져다준 결과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주님으로는 아직 부담스럽다는 고백이며, 이로 인한 신앙과 생활의 괴리현상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감각과 기쁨을 주고 언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관자요, 통치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는 그 의미가 너무 다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님의 의미가 아닌, 구세주라는 의미로 믿고 그러한 분으로 영접할 경우 예수님의 역할은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는 구세주 이상일 수 없다는 점에서 복음의 본질로부터 크게 벗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분께 인생의 무릎을 영원히 꿇고 굴복한 의미에서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아닌, 단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해주는 구세주라는 고백이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인 죄, 십자가, 부활, 회개에 구멍이 생긴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다. 죄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것으로 이해되었기에 십자가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악들을 해결해주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해에 바탕을 둔 회개는 도덕적, 윤리적 죄악들로부터 뉘우치는 선에서, 그것도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정도에서 그쳐버리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수반한다.

-박영철의 “구명난 복음을 기워라”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4권 27호 2018년 7월 8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기우석 집사

경배와 찬양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류영걸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봉헌 (Offering) 71장 (새찬50장)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박태열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마가복음 12:29-31

다같이

설교 (Sermon)

박태열 목사

첫 사랑을 회복하세요

세번째: 온 생각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파송찬양 (Closing Hymn) 93장 (새찬93장)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주중예배/모임]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둘째, 넷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다음주일 대표기도]

이우인 장로

교 회 / 교 우 소 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교회벤 구입을 위한 특별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금봉투에 “교회벤 구입”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설교시리즈 (mp3)가 담긴 CD가 나왔습니다.
- ◆ **새가족교육**이 7월 22일(일) 오후 1시에 시작해서 아래와 같이 4주간 진행됩니다. 1주차: 7월 22일(일) 오후 1시; 2주차: 7월 29일(일) 오후 1시; 3주차: 8월 5일(일) 오후 1시; 4주차: 8월 19일(일) 오후 1시
- ◆ **선교캠프**가 7월 24일(화) 부터 27일(금)까지 시카고에 Wheaton College에서 있습니다.
- ◆ **보드웍 전도**가 7월 29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보드웍전도 교육**이 7월 21일(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 ◆ 친교는 최성혜 사모님께서, 제단헌화는 최성혜 사모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남선교회]

7월 22일(일)에 예정되었던 사택청소가 연기되었습니다. 차후에 새로운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직회]

재직회 모임이 7월 15일(일) 예배후에 있습니다.

부 서 별 소 식

[교우/교역자 소식]

- ◆ **박태익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 **천춘옥 권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 **류금석 집사, 조동숙 집사님** 첫째아들 류제강 군과 Alyssa Rodriguez양의 결혼식이 7월 8일에 있습니다.

[선교후원]

- ◆ 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문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진서, 진후)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중보기도요청]

- ◆ **찬양사역자, 성가대 반주자, Youth 전도사, Children 전도사**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후원할수 있도록 제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회벤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중 모 임 / 행 사

7월 15일(일) 1:00pm 재직회

7월 21일(토) 7:00pm 보드웍전도 교육

7월 22일(일) 1:00pm 새가족교육 1주차

7월 24일(화)-27일(금) 미션캠프

7월 29일(일) 1:00pm 새가족교육 2주차

2:00pm 보드웍전도

지 난 주 일 통 계

헌금총액	\$2,370	출석총인원	37
십일조	\$950	KM 본예배	32
주정(주일)	\$570	주일학교	5
감사헌금	\$240		
선교헌금	\$110		
주일학교	\$		
교회벤구입	\$500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7월 친 교 / 헌 화

1	연선회집사 / 박민자권사
8	최성혜사모 / 최성혜사모
15	박민자권사 / 최미경집사
22	박영자권사 / 이선회집사
29	최미경집사 / 연선회집사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시무장로:	최종인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 (기쁨, 거룩)
협력선교사:	김희기	박경선 (진서, 진후)